제1장 총론

도입

앞에서 몸을 닦고 가정을 바르게 하는 문제를 소개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가? 오랜 수련과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고승(高僧)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해탈만 했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경건한 신앙생활로 성령 충만을 받아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새사람이 되어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혼자만 극락 가고 천당 가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다면 그런 사상과 종교는 무익하다.

바로 유학에서도 이런 수신(修身)과 제가(齊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은 정작 따로 있다. 그것은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올바른 정치를 위한 일이다.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말단 관리에 이르기까지 정치의 혜택이 백성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정치에 대한 총론으로 정치의 근본,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정치의 규모와 절목에 대해서 소개한다.

본문

[서경]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총명한 이가 임금이 되고, 임금은 백성의 부모가 된다.

〈주석〉 채씨(蔡氏)가 말하였다. "성인은 천하의 큰 임금이 되며, 천하의 지치고 병든 이들이 그 삶을 얻고, 홀아비·과부·고아·외톨이가 보호받아 모든 백성 가운데 제자리를 얻지 못한 이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임금이 또 백성의 부모가 되기 때문이다."

[서경]

우(禹) 임금이 말하였다. "임금이 임금의 도리를 어렵게 여기며, 신하가 신하의 도리를 어렵게 여겨야만 정사(政事)가 겨우 다스려져서 백성이 속히 덕에 감화된다." 순(舜) 임금이 말하였다. "그러하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하면 아름다운 말이 숨어드는 일이 없을 것이며, 어진 이가 초야에 묻혀 있는 경우가 없어서 온 나라 안이 다 편안할 것이다. 뭇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자기의 소견을 버리고 타인을 좇으며, 무고한 이를 학대하지 않고, 곤궁한 이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오직 요(堯) 임금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율곡의 풀이]

인정상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면 그래도 힘써 좇을 수 있지마는, 만일 잘하고 있는 이에게 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면 반드시 번민하면서 알아주지 않는 것을 탓하게 된다. 우 임금이 순 임금이 잘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고 거듭 경계하자, 순 임금도 자기가 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감당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虞)나라 조정의 군신이 서로 그 도를 극진히 한 것이요, 성인이 더욱 성스럽게 된 이유이다.

[논어]

정공(定公)이 물었다. "한마디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하니 그런 말도 있습니까?" 하자, 공자가 대답하였다. "말을 그렇게 기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나는 임금된 것은 즐거울 것이 없고, 오직 내가 말을 하면 어기지 않는 것이 즐겁다.'하니, 만일 임금의 말이 선(善)한데 아무도 어기는 이가 없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일 임금의 말이 선(善)하지 못한데도 어기는 이가 없다면 한 마디 말로 나라를 잃게 됨을 기약할 수 없겠습니까?"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정치를 하는 데 덕으로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北極星)이 제자리에 있고, 뭇별들이 그것을 향하여 도는 것과 같다."

[논어의 주석]

순자(荀子)가 말하였다. "몸을 닦는다는 말은 들었으나 나라를 닦는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임금은 소반[槃]이니 소반이 둥글면 물이 둥글다. 임금은 사발이니 사발이 모나면 물이 모나다. 임금은 근원이니 근원이 맑으면 흐르는 것이 맑고, 근원이 흐리면 흐르는 것이 탁하다."

〈주석〉 임금이 덕을 닦는 것은 정치의 근본이다. 먼저 임금의 직분이 백성의 부모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안 뒤에 중(中)을 세우고 극(極)을 세워서 표준을 삼게 되면, 그 효과가 마치 뭇별들이 북극성을 향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순(舜)과 우(禹)·공자(孔子)·중훼(仲虺 : 본문에서 생략함)의 설은 중을 세우고 극을 세우는 요령이다. 아!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많지마는, 임금으로서 백성에게 인(仁)을 행하는 이는 적으니, 천지가 부여한 직책을 생각하지 않음이 심하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매사에 조심하여 신용 있게 하며,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리되 때에 맞게 해야 한다."

[논어]

공자가 위(衛)나라에 있을 때 염유(冉有)가 수레를 몰고 가니, 공자가 말하였다. "백성이 많구나." 염유가 말하였다. "이미 백성이 많으면 무엇에 더 힘써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백성을 부유하게 해 주어야 한다." 염유가 말하였다. "이미 부유하면 또 무엇에 더 힘써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가르쳐야 한다."

[중용]

공자가 말하였다. "대개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아홉 가지 원칙이 있는데, 몸을 닦는 것[修身], 현자를 존경하는 것[尊賢], 친족을 친애하는 것[親親], 대신을 공경하는 것[敬大臣], 여러 신하의 입장이 되어 살피는 것[體羣臣], 서민을 사랑하는 것[子庶民], 백공을 오게 하는 것[來百工], 먼 데서 온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柔遠人], 제후들을 포용하는 것[懷諸侯] 등이다." 몸을 닦으면 도가 서게 되고, 어진 이를 존경하면 의혹이 없어지며, 친족을 친애하면 제부(諸父)와 형제들이 원망하지 않게 되고, 대신을 공경하면 현혹되지 않게 되며, 여러 신하의 입장이 되어 살피면 그들이 예(禮)로 무겁게 보답하게 되고, 서민을 자식처럼 사랑하면 백성이 서로 권면(勸勉)하게 되며, 백공을 오게 하면 재용(財用)이 풍족하게 되고, 먼 데서 온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면 사방이 모두 귀순해 오게 되며, 제후를 포용하면 천하가 모두 두려워하게 된다.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어진 이를 존중하고 유능한 이에게 일을 시켜 재주가 뛰어난 인물이 벼슬자리에

있으면 천하의 선비들이 다 기뻐하여 그 나라의 조정에 서기를 원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점포세(店鋪稅)만 징수하고 물품세는 징수하지 않거나, 또는 시장의 불법만을 다스리고 점포세도 받지 않으면 천하의 상인들이 다 기뻐하여, 그 나라의 시장에 상품을 두기를 원할 것이다. 관문(關門)에서는 이상한 일이 없는지 살피기만 하고 관세(關稅)를 징수하지 않으면 천하의 나그네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나라의 도로에 다니기를 원할 것이다. 농사짓는 자에게는 공전(公田)의 경작을 돕게 하고, 사전(私田)의 세를 받지 않으면 천하의 농민들이 다 기뻐하여 그 나라의 들에서 농사짓기를 원할 것이다. 거주지에 인구세(人口稅)와 가옥세가 없으면 천하의 백성이 다 기뻐하여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진실로 이 다섯 가지를 실시하면 이웃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임금을 부모같이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그 자제들이 떼를 지어 그들의 부모를 공격하는 일은 세상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있었던 적이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천하에 적이 없는 이는 천리(天吏)이다. 그렇게 되고서도 왕노릇 하지 못한 이는 없다."

[율곡의 풀이]

정치하는 요령은 대개는 이 장에 다 실려 있다. 다음의 글에서는 의미를 더 부연하여 설명하였으니, 중(中)과 극(極)을 세우는 것은 정치하는 근본이요, 백성이 많고 부유한 뒤에 가르치는 것은 정치하는 규모(規模)이며, 구경(九經 : 앞의 『중용』에서 말하는 아홉 가지 원칙)의 일은 정치하는 절목이다. 그러나 구경은 본말(本末)을 통하여 말한 것이니, 이른바 수신(修身)이란 바로 중과 극을 세우는 일을 말한 것이요, 이른바 하나라는 것은 또 중과 극을 세우는 근본이라는 것이다.

해 설

유학의 사상 가운데는 철학·윤리·교육·예술 등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풍부한 것이 정치사상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유학의 정치사상은 훌륭한 정치가가 되기 위한 기본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전제 하고 있고, 또 백성들이란 단지 피지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보살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밝혀, 정치사상이 단지 정치기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유학에서 말하는 정치학은 성학(聖學)인 셈이다. 곧 통치자의 내면을 규정하면 성인이요 외면을 규정하면 왕이 된다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을 그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학이 초월적·종교적인 성격보다는 현실적·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이유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본문 [율곡의 풀이]에서 '중(中)을 세우고 극(極)을 세운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中)과 극(極)은 무엇을 뜻할까요? 『논어』의 등장하는 북극성의 비유와 관계가 되고 또 왕에게 성인(聖人)의 위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계된다. 도덕과 정치적 행위를 일치시키는 과거 최고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이상적 경지라고 할까? 현대적 의미로 무엇일까요?

2. 사람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모든 일을 자기 독단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더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친구들 모임, 모둠활동, 동아리활동 등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모임 활동에 잘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 나는 친구의 말에 얼마나 귀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3. 율곡 선생이 말하는 정치란 위정자가 도덕적 수양을 통해 최고의 인격을 완성하고, 이상적인 정치제도를 수립하여 백성들에게 완벽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정치가와 위정자들이 있다. 현대의 위정자들의 모습과 율곡 선생이 생각하는 위정자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고 또 같을지 말해보자.

4. '부국강병(富國强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력이 강한 것만으로 국가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맹자』 『등문공상』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인간에게는 도리가 있는데,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히 거처하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짐승에 가깝다." 부국강병을 이룬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구성원이 도리를 배움이 없다면 그 나라는 짐승이 우글거리는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겠지요! 여기서 맹자가 말하는 가르침과 율곡 선생이 『격몽요결』에서 말하는 배움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맹자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은 짐승이 우글거리는 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런 맹자와 같은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아직도 일리가 있는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5. 앞의 본문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아홉 가지 큰 원칙을 구경(九經)이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아홉 가지 큰 원칙 가운데 수신(修身)을 가장 강조했다. 그러나 요즘 사회를 능력위주의 사회라고도 한다. 무한경쟁시대에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창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가 현대사회에서 유능한 지도자이다. 그렇다면 이런 지도자에게도 도덕적 수양이 필요할까? 만약 필요하다면 그 까닭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런 리더십과 도덕적 수양이 별개의 문제라면 그 근거도 말해보자.

인 군 부 사 천 모 사 지 이 사 민 위 형 제
人君은 父事天하고 母事地하며 以斯民爲兄弟하고
이 만 물 위 제 배 이 충 인 심 연 후 가 진 기 직
以萬物爲儕輩하여 以充仁心이라야 然後에 可盡其職이니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君 : 임금/事 : 섬기다/斯 : 이/民 : 백성/萬 : 일만 만/物 : 만물/儕 : 같은 무리/輩 : 동류/以 : 전치사/充 : 채우다/仁 : 어질다/心 : 마음/然 : 그러하다/後 : 뒤/可 : ~할 수 있다/盡 : 다하다/其 : 그/職 : 직분, 임무

*以~爲~ : ~을 ~으로 삼다

*주절의 본동사는 盡이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사천(事天) : 하늘을 섬김

*제배(儕輩) : 같은 무리의 사람. 같은 말에는 동배(同輩) 또는 동류(同類)가 있다.

해석

임금이 하늘을 아버지로 섬기고 땅을 어머니로 섬기며 백성을 형제로 삼고 만물을 동류로 삼아서 인심(仁心)을 충만하게 하여야만, 그 직임을 다할 수 있다.

자 왈 도 천 승 지 국 경 사 이 신 절 용 이 애 인 사 민 이 시
子曰 道千乘之國하되 敬事而信하고 節用而愛人하며 事民以時니라(『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道 : 다스리다, 길/千 : 일천/乘 : 타다, 수레/之 : ~의/國 : 나라/敬 : 공경하다/事 : 일, 부리다/而 : 말을 잇는 접속사/信 : 믿다/節 : 절약하다, 마디/用 : 쓰다, 재물/愛 : 사랑하다/時 : 때

*以時 : 때에 맞게

*의미상의 주어는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천승지국(千乘之國) : 천 대의 병거(兵車)를 낼 수 있는 나라의 뜻으로 큰 제후국을 말함

*절용애인(節用愛人) : 나라의 재물을 아껴 쓰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뜻

*사민이시(使民以時) : 백성을 때에 맞게 부린다는 뜻으로 곧 농번기를 피해 부역을 시킴

해석

공자가 말하였다.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매사에 조심하여 신용 있게 하며,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리되 때에 맞게 해야 한다."